

불교의 사회 영향력 제고를 위한 한국 종교지형 내의 불교지형

권진영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 교학실장

To enhance the social influence of Buddhism Buddhist topography within the Korean religious topogra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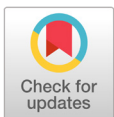
Kwon, Jinyoung

Youngseok High School Attached to Collage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kjy5381@korea.kr

Abstract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look at Buddhist topography among Korean religious topography and find ways to enhance the social influence of Buddhism and strengthen its capabilities. Therefore, the research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n religion and Buddhist topography. This consideration will be center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religion' and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ociety (the world)'. The main features of Korean religious topography in the 2000s are first of all, the rise of "conflict" between religions and, between religion and society. Secondly, the polarization of the religious market by neo-liberalism, and last, the rise of the New Age movement, which is one of the effects of post-modernism. According to the 2015 religious census, the number of Buddhists decreased by 3.1 million from 10 years ago. In the perspective of the integration with the religion market, causes of the decrease are as follows. Firstly, it was a dependent variable from the religiously biased political policies from the previous governments which was the natural result. Second, Buddhist contributions to the secular areas in education, medicine, the media, law were unsatisfactory in the moving with the times. Third, I believe that Buddhism as a system religion stuck to the framework of tradition and failed to satisfy the needs and thirst of the world, which led to the shift to faith that is not part of the temple, or "non-institutional dissociation." Therefore, for future Buddhism, first, the self-purification ability and innovation ability inside Buddhism will be the main driving force to enhance future Buddhism. Second, an alternative to the 20th and 30th Generation is clearly necessary. Third, the establishment and practice of Buddhist thought based on accurate Buddhist teaching, the strengthening of social influence through the multi-faceted civic movement, and the positive acceptance of the New Age movement are the needed factors. However the future of Buddhism is not all discouraging. Buddhism basically has a strong aspect of open pluralistic character rather than exclusive nature. This characteristics of Buddhism has the potential to be the most suitable religion of future society. In addi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which human alienation phenomenon can rise, Buddhism can play a big role in seeking eternal happiness through healing.



OPEN ACCESS

KJRE. 2020 December, 64(1): 229-244

DOI: <https://doi.org/10.12972/kjre.20200028>

Received: November 15, 2020

Revised: December 18, 2020

Accepted: December 21, 2020

Copyright: © 2020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eyword: Buddhist topography,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ociety (the world), the reduction of the population of Buddhism, the phenomenon of non-institutional dissociation, future Buddhism

1. 들어가는 말

종교사회학자들은 ‘종교와 종교 간’, 또는 ‘종교와 사회(세속)’의 상호 관계성에 대한 경험적 현상을 신앙적 편견 없이 연구하려 한다. 즉, 신학이나 종교철학처럼 규범적인 접근 방법을 지양하고 경험적 과학 탐구의 자세를 갖고 있으며 종교의 세속화나 다문화 상황과 같은 여러 사회현상과 종교의 관계 등의 주제에 깊은 관심을 두는 추세이다.¹

본 연구는 한국의 종교지형 가운데 불교지형을 살펴 불교의 사회 영향력을 제고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찾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불교인구가 최근 감소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불교 신행의 관점에서 ‘부처님의 진리는 최고로 수승하니 언젠가는 다시 불교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등의 낙관이나 ‘시절인연에 다 된 것이니 어쩔 수 없다.’ 등 체념의 태도가 아닌 종교사회학적 해석을 통해 실천 가능한 대안을 찾아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종교지형 내의 불교지형에 대한 몇 가지 논의를 다루려 한다.

일반적으로 종교지형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그래서 현재의 종교지형 내의 불교지형에 왜 파악하기 위해 한국 종교지형과 불교지형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일제강점기의 종교지형은 일본의 제국주의와 식민통치라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되는데 당시 공인종교의 규정과 관련한 사항들을 고찰하여 당시의 시대상황을 분석해 보려 한다. 또한, 기독교 국가 건설을 꿈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종교정치를 통해 현대 한국 종교지형에서 제1종교로 개신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유신 독재 체제의 박정희 정권 시절은 경제개발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의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종교계의 대응 태도는 향후 한국 종교지형의 판도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와 함께 해방 후 정화 불교시대를 거쳐 전두환 정권의 10.27 법란 사태와 이에 따른 민중불교운동의 전개, 그리고 그 이후 정권의 불교 편향 정책과 일부 개신교 신자들의 기독교 근본주의에 의한 훼불 사건 등에 의한 불교지형의 역사적 형성과정²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가장 주요한 종교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를 중점으로 고찰해 보려 한다.

이러한 고찰은 시대별 ‘종교와 종교 간의 관계’ 그리고 ‘종교와 사회(세속) 즉 정교(政敎)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사회현상에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요인뿐만 아니라 시대적 사조 등의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종교인구의 증감을 시대적 이념이나 철학적 사조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불교중흥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대안 마련을 구상해 보려 한다.

2. 한국 종교지형과 불교지형의 형성

1) 일제강점기의 종교지형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역할 변화나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연구할 때 흔히 종교지형을 고찰하는 경우가 있다. 종교지형이라는 용어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정의와 용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종합적 사회위상학이라는 관점으로 종교지형을 ‘사회 내에서의 종교라는 상징체계, 의미체계를 독립적으로 추구하는 개인과 제도, 공동체들의 상호작용 공간’ 또는 ‘구원재(commodity of salvation)의 수급을 목표로 제도적으로 분화된 교환체계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상호경쟁,

갈등, 협력의 공간'이라는 정의가 있다. 이는 종교인구의 비율, 지역분포 등을 포괄하고 종교 문화적 측면과 종교의 성장과 쇠퇴 과정을 포함한 종교사적 특성을 아우르고 있다. 그 이유는 종교인구가 많다고 그 사회 공간에 상위의 종교적 위계를 의미하거나 그 사회의 종교 중 사회적 역할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문화에 집중한 연구는 사회학적 접근이 어려워 '종교와 사회'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요컨대, 인구학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 그리고 역사적 차원을 매개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종교지형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³ 한편 종교지형을 '한 사회의 종교 제도와 문화가 다양한 형태의 여러 종교단체를 형성하면서 서로 겨루는 형세'라고 하여 지리학에서 '지표면의 기본형태'를 지칭하는 용어를 빌리는 일도 있다. 아무튼, 종교지형이란 정교 관계와 종교시장의 통합적 연구 방법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⁴

일본은 1906년 종교선포규칙을 제정하였고 1907년 한국의 종교 인구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1910년 강제병합 이후 소위 공인종교인 불교와 기독교만 통계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다. 첫째, 일본은 통감정치기(1904-1910)부터 조선 민족의 정신문화를 와해시키고 일본 종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식민통치의 수단으로서의 종교 정책을 폈다. 예를 들어 공인종교⁵에 대한 규정 목적이 한국인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식민통치에 종교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당시 한국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유교를 공인종교에서 제외 한 점, 대신 이를 일본의 '국가신도'로 대체하여 다른 종교를 초월하는 '초종교'의 지위를 부여하여 다른 종교는 물론 조선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려 한 것이 그것이다. 일본은 공인종교 이외의 민족종교는 유사종교나 미신으로 취급하여 당시의 한국의 종교지형을 제국주의적 정치 의도로 왜곡시켰으며 여기에 불교지형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선총독부는 불교에 대해 '사찰령'을 실시하였으며 대처승 제도를 도입하였고 친일 승려를 육성하여 일본식 황도불교로 전환시키려 했다. 1911년 6월에 공포한 '사찰령'은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법률 제30호)에 따라서 공포한 법규인데 총독의 허가 와 인가에 의해 사찰 재산의 처리와 주지의 임명이 가능하다는 '총독 인가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⁶ 둘째,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개신교는 제국주의를 신봉하는 일본인이 아닌 서구의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되었다. 이는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에 의해 개화의 추진력과 민족 독립의 후견 세력으로 인식되었다. 즉, 이들 지식인층은 근대 서구적 교육, 새로운 사회문화적 운동, 그리고 개신교를 통해 독립과 자주 민주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믿었다. '종교와 사회'라는 정교의 관계에서 본다면 당시의 지식인들은 개신교의 사상과의 친화성보다는 사회 정치적 주변 상황의 대안으로 개신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초기의 서구(미국)의 선교사들은 도시민을 중심으로 선교사가 아니라 의사나 교사로서 근대화에 이바지했고 이러한 기여는 한국교회 발전의 반석이 되었다.⁷ 셋째, 국가신도, 불교, 기독교로 구성된 공인종교 규정에는 동양의 종교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서양의 종교관이 투영되어 한국 종교지형의 파악에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종교(宗教)와 Religion의 용어의 어원적 차이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양과 서양의 종교는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데 일본이 서양의 종교 체계를 받아들여 동양인 한국의 종교지형을 살펴보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 척도로서의 여러 가지 오류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유교는 초월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나 인간의 사후의 세계 등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서양의 종교관으로는 종교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종교로 발전하여 다른 종교를 배제하는 서양의 종교적 특성에서는 유교를 종교로 볼 수 없지만, 동양의 경우 한 사람의 종교성에는 복합적 중층구조의 종교의식을 가지고 점에서 유교의 영향력은 실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현대의 종교인구 조사 방법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4년 한국갤럽에서는 자신의 종교가 무엇인지 스스로 답하는 방법이 제도종교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하고 종교 소속감이 적더라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 당사자의 종교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 방법으로 종교로 분류되지 않은 유교가 한국인의 종교성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여기에 의하면 한국인의 91.7%가 실천적 유교인이고, 49.7% 실천적 불교인이며, 36.3%가 실천적 기독교인이다.⁹

2) 해방 이후 1950년대의 종교지형

해방 이후 한국 종교지형은 미국 군정¹⁰과 이승만 정권의 기독교 중심적 정책에 의해 기독교가 급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해방 후 미군 OSS 문관 대령 군복을 입고 귀국한 이승만은 제헌국회를 통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된다. 이승만은 1945년 11월에 열린 ‘임시정부영수환영대회’에서 “이제 우리는 신국가 건설을 할 터인데, ‘기초 없는 집을 세우지 말자’ 곧 만세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우자!”라고 외쳤으며, 1946년 3월 1일에 열린 ‘제27회 독립선언기념식’에서 “한민족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영원히 자유 독립의 위대한 민족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협조의 복을 누리도록 노력합시다.”라는 개회사를 했다. 1948년 7월 24일에 정부통령 취임식에서 이승만이 낭독한 취임사의 서두에서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통령이 추대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통령 직책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대통령 선서를 하였다.

이어 1948년 8월 초에 조각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의하면 21명의 초대 각료 가운데 개신교 신자가 9명, 대종교 신자가 4명(1951년 이전 대부분 축출됨), 불교 신자 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승만은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는 자신의 개인적 종교 신념에 따라 국가 정책 이념을 설정하였다. 예를 들자면 이승만의 정권 초기에 지배 이데올로기는 ‘일민주의(一民主義)’¹¹였는데 1949년 4월 20일 중앙방송을 통해 ‘일민주의와 민족운동’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는데 일민주의의 첫 번째 강령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하였다는 신앙을 토대로 한국의 민주주의의 토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승만 정권 시대의 기독교는 여러 가지 특권을 갖게 되는데 국기에 대한 배례(拜禮) 혹은 최경례(最敬禮) 방식이 주목례로 바뀐 점, 군중제도를 도입한 점¹², 국가 의례를 기독교식으로 제정한 점, 형목제도화를 도입한 점,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국경일¹³로 하고 주일성수(主日聖守)¹⁴를 한국의 일반적 문화화한 점 등이다. 이러한 종교정치적 결과 개신교 신자는 1940년 당시 10~15만 명에서 남한 지역의 신자 숫자가 1950년경에 약 50만 명, 1955년경에는 약 100만 명이 넘게 급성장한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 분단의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 구도 가운데 남한에서의 개신교는 반공 이념과 함께 최고의 종교로서 사회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

한편 이승만 정권 시대의 불교지형은 친일매국 등의 일제 불교 정책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불교의 전통을 회복하려는 소위 정화불교의 시대로 대변된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불교지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해방을 맞이한 불교계는 비구승과 대처승의 갈등의 불씨가 점화되고 있었다. 1952년 만암 종정은 선승이 수행할 도량과 교리를 연구할 사찰을 따로 둘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불국사에서 법규 위원회를 열고 18개 사찰을 선승의 도량으로 정했다. 그러나 당시에 200대 6,800 정도의 비구승과 대처승의 불균형 상황에서 무산되고 만다. 1953년 효봉, 청담 스님 등 200명의 비구승들은 선학원에 모여 1차 수좌대회를 열었고 1954년 5월에 발표된 이승만의 불교정화 유시는 불교계의 본격적인 갈등의 계기가 되었다. 1955년 이승만 정권은 당시의 불교계 갈등 중지를 부탁하는 한편 대처승들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의 담화를 발표하여 격심한 갈등과 혼란의 시기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불교 외적 요인에 의한 정화는 한국불교의 정치 종속성의 실마리가 되기도 했다.

3)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종교지형

4.19 혁명 이후 불과 1년여간의 제2공화국은 다분히 반 개신교적 위상변화를 잠시 가졌으나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반공을 국시로 하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강조하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의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이 진행되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1962년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역할과 참여에 대한 새로운 형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기독교의 위상 되찾기를 실시하였다. 1964년 ‘전국복음화운동위원회’를 결성하여 대대적인 선교 활동에 나선다. 이러한 부흥 집회를 통해 1950년대에는 10년간 24.6%였던 기독교 신자의 증가율이 1960년

대에는 412.4%로 증가하였다. 교회는 국가 경제발전에 수반된 도시화 현상에 따른 새로운 공동체 형성 욕구 증가 등의 각종 변화하는 사회 전반의 문제를 직시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대처하면서 시대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폭발적 성장을 거듭한 것이다.¹⁵ 1972년 10월 17일 유신체제로 전환되며 제4공화국이 수립된다. 유신 독재 체제 하에서 종교계는 국가의 신성성에 도전할 수 없었으며 불안과 공포의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신비주의적 경향이 확대되었다. 기독교는 1972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한국 전도대회, 1974년 엑스포로 74 전도대회,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등을 개최하여 1970년대 후반 전 세계적인 추세였던 기독교 성령 운동인 대규모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1962년 3월에 가톨릭은 교황에 의해 정식 교구로 승격되어 독립적 자치교구 체제를 갖추었으며 교세가 크게 확장되기 시작했다. 가톨릭은 1971년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대사회 공동교서를 발표하며 사회참여의 양상을 본격화하였고 유신정권에 항거하는 민주화 운동의 주요 구심점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에서는 개발 독재로 인한 인권 유린, 민중의 소외에 관한 관심을 두고 민중 신학이 시작되기도 했다.

불교계는 이승만 정권 이후 비구-대처승의 갈등 구조가 더욱더 깊어졌다. 1962년 1월 13일 박정희는 ‘불교계의 분규를 조속히 종식하고 대동단결하여 불교 자체의 융성과 민족 문화의 양성에 힘쓰라’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후 비구 대처 양측은 ‘불교 재건 비상 종회’를 구성하였고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비구, 대처 통합종단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후 1970년 4월 16일 대처 측은 ‘한국불교 태고종’을 출범시킨다. 또한, 이 분규 도중에 많은 독자적인 불교종단들이 성립되었다. 불교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의 여러 종단으로 분열되었으며 1962년의 『합동연감』(1962)에 따르면, 687,345명에서 1969년에는 4,943,059명으로 집계(『중앙연감』(1970)되고 있어 불교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960년대 후반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 한편 1962년 공포된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조계종은 종단의 존립, 불교 재산 보호, 대처 측의 반발을 무마하였으나 불교가 국가권력의 영향력에 종속되는 현실적 한계를 피할 수 없었다.

4) 1980년, 1990년대 그리고 2000년 대의 종교지형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은 전두환,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1981년에 제5공화국을 수립했다. 사북탄광 노동자 파업, 전국 대학생 대규모 시위의 상황에 대하여 신군부는 1980년 5월 비상계엄령을 확대하였고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민주화의 염원을 압살하였다. 유신 잔재 청산을 위해 대통령 7년 단임제, 국회의 권한 강화,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등의 정책을 폈으나 대통령 간선제나 군 출신 인사 중용 등의 과거 청산에 미흡한 정책도 시행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성장제일정책보다 안정우선정책을 펼쳤고 활발한 외교 활동을 통해 주변국과의 정상회담을 실시하고,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 1988년 올림픽대회 유치하는 데 성공하는 등 권력 굳히기에 힘썼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인권 유린, 민주화운동탄압으로 인하여 연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1986년 천주교정의사회구현전국사제단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일은 6월 10일부터 20여 일간 전국적으로 약 500여만 명의 참여한 6월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다.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 내용으로 하는 6.29선언이 있게 되고 12월 16일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다. 1988년 노태우 정권이 수립되었으며 이러한 1980년대의 격랑의 사회상황에 대해 종교계는 새로운 양상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1984년 선교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는 84선교대회, 85기념대회를 개최하여 교회 내부의 중흥을 꾀하고 민주화 운동의 실천을 통한 사회참여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가톨릭은 1981년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행사’, 1984년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사업’, 1989년에 ‘제44차 세계성체대회’ 등을 통해 교회의 위상을 다졌으며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하였다.

1980년 불교계는 오랜 침묵을 깨고 활발한 사회참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개인이라는 소아(小我)에서 민중이라는 대아(大我)로 의식을 전환하고 정치경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민중을 해방하고자 했던 민중불교는 1980년대 초 서서히 불교 내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는 불교 정화를 빌미로 불교탄압을 자행한다. 이 10.27법난¹⁷은 향후 민중불교운동연합, 정토구현전국승가회, 민주헌법쟁취불교운동본부,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연합 등의 민주화 운동의 촉발제가 되었다. 이러한 1980년대의 민중불교운동은 1990년대의 다양한 불교시민운동이 꽃필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다.¹⁸ 그런데 현대 한국불교의 분수령을 만든 이 민중불교운동에 대해 미래지향적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종교와 사회(세속)’의 차원에서 종교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현실에 종교의 정체성을 잃고 지나치게 세속화돼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민중불교운동에서 수용하였던 ‘민중’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생산수단에서 소외되었기에 수탈당하게 되고, 통치 수단에서 소외되었기에 억압당하고, 소외되었기에 차별당하는 피지배자’로서 똑같이 수용되었던 것은 비판의 여지가 많다. 사회적 맥락이 반영되어 형성된 의미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없는 수용으로서 전체 변혁 운동에 종속된 부문 운동이나 마르크스주의적인 계급주의적인 운동의 논리로 편향되기도 했다.¹⁹ 그래서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이라는 과정에서 실천만 강조되는 시대적 분위기도 1980년대의 불교계에 만연했던 경향도 짙었으며 민중불교 이후 불교의 모습은 민중을 위한 구호가 점차 사라지자 공허함이 남게 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불교를 세속화하지 말고 세속을 불교화하라.”라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며 미래의 불교를 생각해야 한다.²⁰

1993년 군부 출신이 아닌 김영삼은 ‘문민정부’라는 민간정부를 수립한다.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 처벌,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의 해체, 선거법의 개정, 작은 정부의 지향, 금융실명제 실시, OECD 가입 등의 정부 시책을 펼쳤으나 국가적 경제 부실로 인한 IMF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를 실현한 ‘국민의 정부’를 수립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여 국내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 ‘햇볕정치’를 실시하여 대북관계를 평화체제로 구축하려 하였다. 1990년대는 소비가 생산을 이끄는 대중사회로 전환되고 신자유주의 사조가 세계적으로 팽배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특히 눈길을 끄는 종교지형으로는 개신교 인구의 이례적인 감소현상이었다. 이러한 개신교 인구의 감소현상에 대하여 개신교단은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한편으로는 몇몇 대형교회가 개신교단의 중심이 되는 현상이나 근본주의의 확산도 당시의 개신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가톨릭은 1990년 평화방송라디오, 1995년 평화방송TV를 개통하였고 1993년 ‘참생명학교’, ‘우리농촌학교’가 개설되어 사회복지 등의 사회참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1990년대 불교계는 안으로는 종단분규와 밖으로는 종교편향정책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불교방송, 불교TV 개국 등의 노력을 기울이었으며 실천불교승가회, 경제실천불교운동연합회, 조국평화통일불교연합회 등이 연합하여 전국 불교운동연합이 탄생하여 다양한 불교시민운동을 전개하였다.

2003년 노무현은 국정운영에 국민의 참여가 핵심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참여정부’를 수립한다. 1990년대부터 일부 근본주의 개신교도들의 군법당 파괴, 사찰방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휴거 사태,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종교적 이슈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다.²¹ 2003년 개신교 뉴라이트의 세력화와 신시운동 사태 그리고 종교정당 출현,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납 사건, 2008년 이명박 정권의 개신교 편중 갈등²²,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집회의 3대 종교 신자들의 대규모 참여 등의 사회현상이 일어나 ‘종교 간’, ‘종교와 사회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3. 현대 한국 종교지형의 특징

2000년대의 한국 종교지형의 큰 특징은 첫째 종교 간, 종교와 사회 간 ‘갈등 관계’의 고조, 둘째, 신자유주의에 의한 종교시장의 양극화 현상, 그리고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중 하나인 뉴에이지 운동의 급증이다.

1) 종교 간, 종교와 사회 간 ‘갈등 관계’의 고조

종교 간, 종교와 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담론은 1980년에서 1990년대에는 우리 민족의 심성은 종교들에 대해 평화적인 공존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점차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종교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정교 유착 또는 갈등의 구조로 보는 정치사회학적인 정교관계론으로 진행되었다.

<표 1> 한국 종교지형에 대한 접근들²³

접근방식 이론적 토대 한국종교지형에 대한 이해 논의시기	심성론 심성론, 민족주의론 평화적 공존 1980~1990년대	낙관적 종교시장론 종교시장이론, 분화이론 자유경쟁·다원주의 1990~2000년대	비판적 종교시장론 종교 외적개입으로 인한 독과점 2000년대 후반~	정치사회학적 정교관계론 정치구조 및 제도 정교 유착 또는 정교·종교간 갈등 2000년대 후반~
--	--	---	--	--

2) 신자유주의에 의한 종교시장의 양극화 현상

종교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많다. 신자유주의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적 경제이론에 기원을 두고 있다. 1929년 미국 증권시장의 붕괴와 함께 세계적인 대공황 사태가 발생하여 자본주의 체제가 흔들렸다. 케인즈 경제이론에 의해 세계 경제는 잠시 회복되었으나 1960년 말부터 수정자본주의로 일컬어지는 케인즈의 경제이론은 작동을 멈추게 되었다. 그래서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지향되었으며 무한 경쟁, 양극화 현상 등의 부정적 측면도 있는 신자유주의²⁴는 한국 종교지형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종교 교단에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적극적인 종교 마케팅이 시작되었다. 삶의 제반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힐링과 케어 그리고 각종 전문 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그 결과 종교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른 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독주 현상이라고 하는 양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3) 뉴에이지 운동의 급증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종교현상으로 뉴에이지 운동을 들 수 있다. 계몽주의의 계승자인 모더니즘은 이성주의, 공리주의, 기계적, 이분법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이를 해체하고자 하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현시대의 존재론적 특징을 불확실성, 우연성, 모호성, 다원성으로 규정하려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역사와 문화에 대한 거대 서사시, 거대 이론, 보편적 진리의 거부, 절대적 객관성의 부정, 사회문화적 다원화 또는 불일치, 중앙화된 통제의 상실 또는 분권화, 실재(reality) 대신 이에 대한 이미지의 지배, 불안정한 자아, 인간 자율성의 확대, 사회체제나 문화적 주류와 비주류 경계의 와해 등이다. 종교의 영향에서는 기존의 제도종교에 이탈하여 ‘나에게 효과 있는 것(what works for me)’이 진리다!’라는 실용주의와 상대주의적 종교관이 사조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조의 결과로 1970년대부터 제도종교의 영역 밖에서 힐링, 케어, 심신수련과 자기 계발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 현상이 일어났고 확산되었는데 이를 뉴에이지(New Age)운동²⁵이라 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유럽 가치관 조사(European value study)’에 의하면 교회에 나

가지 않는 사람들은 늘어난 데 비해 유럽인 과반수가 개인적 기도와 명상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다는 조사가 이루어졌다. 퓨 포럼(Pew Forum)의 2014년 종교지형 조사(Religious Landscape Survey)에 의하면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the nones)은 전체 인구의 22.8%로 복음교회(25.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종교집단’이 되었다. 소속 없는 믿음(believing without belonging)은 다양한 종교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도 종교인구조사에서 개신교는 1995년에 비교하여 14만 4,000명이 줄어들어 1.6%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경우가 있다. 이때 개신교 신자의 감소 현상의 여러 원인 가운데 소속 없는 믿음과 관련된 분석이 있다.²⁶ 즉, 개신교 종교인구가 줄었지만, 그 상당수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비교회화(entkirchlicht) 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4. 현대 한국 불교지형과 불교의 미래를 위한 과제

1) 불교 신자의 감소현상

<표 2> 종교별, 연도별 종교 인구 비율(%)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불교인	19	21	18	24	22
개신교인	17	19	20	21	21
천주교인	6	7	7	7	7
기타종교인	3	2	1	1	0
종교 없음(비종교인)	56	51	53	47	50

2014년 종교인의 비율은 불교인이 22%, 개신교인이 21%, 천주교인이 7%, 비종교인이 50%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불교인이 20%, 개신교인이 18%, 천주교인이 5%, 종교 없음 56%, 여성은 불교인이 24%, 개신교인이 24%, 천주교인이 8%, 종교 없음이 43%로 나타났다. 그런데 1년 뒤인 2015년 종교 인구조사에 의하면 불교인이 761만 9천 명(15.5%)으로 10년 전보다 7.3%가 감소했다. 약 310만 명 정도가 10년 만에 준 것이다. 개신교인은 106만 명 정도가 증가하여 한국 제 1종교가 되었다.

<표 3> 연령별 종교인 분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84	'97	'04	'14	'84	'97	'04	'14	'84	'97	'04	'14	'84	'97	'04	'14	'84	'97	'04	'14
불교인	10	10	15	10	17	15	21	11	28	21	27	21	29	30	35	32				35
개신교인	20	19	23	18	19	22	23	20	14	22	21	20	13	18	19	23				24
천주교인	5	6	6	3	7	8	6	7	5	8	9	9	6	7	6	5				8
비종교인	64	64	55	69	55	53	51	62	51	47	43	49	47	44	38	40				32

불교인의 연령별 비율은 2030 세대는 10%포인트 정도이며 5060 세대는 30%포인트가 넘어 많은 격차를 보이지만 개신교, 기독교는 연령적 분포가 고른 편이다. 또한, 개신교, 가톨릭과 비교해 10년 전과 비교하여 6%포인트가 감소한 2080 불교신자의 낮은 분포도를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어릴 때 처음 접한 종교를 지속해서 믿는 경향이 있으며, 종교 생활을 중단했다가 다시 종교 생활을 할 경우 처음 접했던 종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래 불교의 감소율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표 4> 연령별 비종교인의 호감 종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없다	
	'04	'14	'04	'14	'04	'14	'04	'14
19~29세	34	18	11	12	18	17	36	52
30대	37	23	11	7	19	23	33	47
40대	43	30	17	12	17	18	23	40
50대	39	28	11	11	13	17	36	43
60세 이상		31		10		10		48

연령별 비종교인의 호감 종교를 보아도 2030 세대들의 불교에 대한 호감도는 10년 전보다 16%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미래 불교의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진다.²⁷

정교 관계와 종교시장의 통합적 관점에서 보면 종교는 세속과 무관하지 않으며 종교 간의 자유경쟁 또는 갈등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한국 종교지형의 특징을 고려하여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강화에 대한 과제를 정리할 수 있다. 즉, 불교 인구 감소에 외부의 요인으로 저출산, 핵가족화에 따라 불교 인구가 고령화되는 측면, 취업난이나 종교에 대한 원초적 무관심, 개인화(사사화), 탈제도화 현상, 종교에 대한 편견, 종교에 대한 본질적 오해 등이 있다. 또한, 불교 인구 감소의 외부적 요인으로는 종교 세속화와 성직자의 자질 문제, 문중 가족주의적인 사찰 운영방식, 사회적 역할 부진, 교리의 실천 부족, 수행 기피, 출가자의 급감, 법회를 통한 신도 조직관리 부족, 그리고 전법 역량의 부족 등이 있다.²⁸ 이러한 불교 인구 감소의 원인을 한국 종교지형의 특징과 관련하여 재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교 관계와 종교시장의 통합적 관점에서 불교 인구의 감소 요인으로는 첫째, 한국 근현대사를 돌이켜 볼 때 일제강점기의 암울했던 제국주의 식민통치의 압제와 이승만 정권의 기독교 중심의 종교정치 이래 역대 정권의 종교 편향 정책에 대한 종속변인으로서 개신교가 한국 제1의 종교 인구 비중을 차지하며 불교 인구가 대폭 감소한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둘째, 시대의 흐름 가운데 세속의 제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대안을 마련해 실천해온 개신교나 가톨릭의 경우와는 달리 교육, 의료, 언론, 법률, 등의 세속 영역에 대한 불교의 기여도가 미진했던 점²⁹은 한국 종교시장에서 대중들에게 서서히 외면을 받는 이유가 되었다. 셋째 제도종교로서의 불교가 전통의 고수라는 틀을 고수하고 세속의 욕구와 갈등을 채워주지 못한 결과 ‘절(법회)에 소속되지 않은 믿음’으로의 전환, 즉 ‘비제도 불교화’³⁰ 현상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한국의 중층적 종교의식의 측면에서 유교가 종교의 유무를 떠나 한국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듯이 불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러한 한국인의 불교성은 뉴에이지 운동과 만나 상당한 부분이 ‘유동적 종교’³¹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인다.³²

2) 미래 불교를 위한 과제

미래 불교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본다면 불교가 담당해야 할 미래지향적인 책임은 정신문화의 계발에 있다고 보고 공존의 불교적 질서의 원리를 사섭, 사무량, 육바라밀, 육상 등에 두고 관용의 보편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며 불살, 무소유의 정신으로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며, 허무주의에서 벗어나 고양(高揚)된 삶의 실천을 하자는 주장도 있다. 또한 삼취정계의 정신으로 파사현정의 기개를 발하여 정의를 실천하며 불교 본연의 가풍인 수도의 기풍을 복돋아 바람직한 불교 신행 생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이러한 미래 불교운동을 위해 효율적인 신도의 조직성, 기복적 불공보다는 수도라는 의식 고양, 신심과 구제, 정법을 다지는 방향의 법회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³³ 이러한 생각들은 다른 사조이나 시대적 이념을 소위 방편으로 빌려 흥내 내다가 불교 고유의 정신을 잃는 폐단을 방지하고 불교 교리를 현대적으로 응용하여 실천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불교가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불교를 진정으로 이해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일반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단순 응용의 실천 또한 불교의 자리를 잃는 시대적 착오를 거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변화한 사회 환경과 종교 환경으로 인하여 포교라는 말을 용도 폐기하자는 주장도 있다. 즉, 다종교, 다문화사회 환경에서 포교나 선교처럼 남을 계몽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용어를 없애자는 이야기이다. 대신 ‘사회적 역할’이라는 말로 대체해야 하며, 이것이 종교 본유의 기능을 되찾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⁴ 종교의 기능은 개인의 궁극적 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적 발전과 공동체 의식 강화, 문화 전통의 계승, 사회 구성원의 갈등과 투쟁 종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여러 모습 중 하나인 다원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각자의 ‘구원재’를 종교상품으로 내세워 무한 경쟁하는 작금의 종교적 상황은 전통적 제도종교의 사유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³⁵ 그런데 ‘포교’라는 용어를 버리자는 주장을 다시 생각해보면 불교는 맹목적인 양적 팽창을 위한 교조적 포교 태도나 사람들의 욕구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방통행식의 포교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해석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미래 불교의 방향성을 불교 내부에서 찾아보자는 주장도 있고 또 다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한국 종교지형의 형성과정에서 보면 미래 불교를 위해 몇 가지 숙고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한국 종교지형의 시대별 고찰을 통해 우리는 ‘종교와 사회(세속)’라는 측면에서 늘 정교 관계의 통합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그 원인이 반드시 종교 내부에도 있었다는 점을 환기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교 내부의 자정 능력과 혁신 역량은 미래 불교를 위한 주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불교인구의 감소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견을 받아들이 수밖에 없다면 2030 세대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필요하다. 즉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청소년 전법의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 종교지형의 특징이 종교의 양극화, 종교간 갈등 구조 구축, 뉴에이지 운동의 확산이라는 점을 감안 해보면 불교가 나가야 할 길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정확한 불교 교학에 바탕을 둔 불교 사상의 정립과 실천³⁶, 다방면의 불교시민운동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강화,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의 긍정적 수용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뉴에이지 운동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개성과 필요성을 우선 가치로 하는 작은 신도 조직으로의 구조 개편, 각종 현대인의 욕구를 실비나 무료로 해소해주는 감성이 풍부하고 건강도 잘 돌볼 수 있는 신개념 불교센터나 편의시설의 건립과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 나가는 말

종교사회학계에서는 사회 근대화에 따라 종교의 권위가 점차 떨어져 그 영향력을 잃는다는 종교의 세속화(secularization)이론이 상당한 지지를 받아왔었다. 즉, 비종교적 가치와 세속적 제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사적 영역으로 축소되거나 사회 전반의 공적 역할이 없어질 것으로 보는 관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주일예배 1만 명이상이 출석하는 한국의 메가처치들의 사례나 정부의 종교 편향이나 일부 개신교도들의 근본주의적 반응은 이와는 어긋난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이라 분류되는 ‘종교적 관심은 있으나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증가도 특이한 한국의 종교문화 중 하나이다.³⁷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 종교지형의 형성과정을 시대별 ‘종교와 종교 간’, ‘종교와 사회(세속) 간’의 통합적 관계성을 통해 살펴본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정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초대 이승만 정권의 기독교 특권주의 종교정치를 시작으로 역대 정권들의 불교탄압을 포함한 종교편향 정책이라는 요인으로 만들어진 한국 종교지형 속에서 불교의 지형은 이제는 오랜 전통의 관습에서 벗어나 혁신을 해야 마땅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더구나 2030 세대에 대한 전법 대안은 너무나 절실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불교의 미래가 어둡기만 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속성보다는 열린 다원주의적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불교의 특성은 미래 사회의 가장 적합한 종교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이성주의’를 해체하여 모든 고정된 이념에서 탈피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다

원주의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과 불교는 상통하는 바가 크며 미래의 변화하는 사회에 불교는 긍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변화를 뜻하는 4차 산업 혁명은 인공지능(AI)이 적용되며 상당한 부분 인간의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양극화 등의 사회적 현상이 예견되며,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인간 소외 현상에도 힐링과 치유 그리고 더 나아가 깨침을 통한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요약

이 연구는 한국 종교 지형 중 불교 지형을 살펴보고,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종교의 역사적 전개와 불교 지형을 조사한다. 이는 '종교와 종교의 관계'와 '종교와 사회(세계)의 관계'가 중심이 될 것이다. 2000년대 한국 종교지형의 주요 특징은 우선 종교 간, 종교와 사회 간의 '갈등'이 고조된 점이다. 두 번째로 신자유주의에 의한 종교시장의 양극화,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중 하나인 뉴에이지 운동의 상승이다. 2015년 종교인 조사에 따르면 불교 신자는 10년 전보다 310만 명 줄었다. 종교시장과의 통합적 관점에서 보면 감소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적으로 편향된 이전 정부들의 정책에 대해 의존적이었고, 따라서 불교 인구 감소현상은 당연한 결과였다. 둘째, 교육, 의학, 언론, 법률 등 세속적인 분야에 대한 불교의 기여는 충분치 못했다. 셋째, 불교는 전통의 틀에 고착되어 세상의 필요와 갈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비제도 불교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미래 불교는 우선 불교 내부의 자정능력과 혁신능력이 미래 불교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다. 둘째, 20, 30세대의 대안이 분명히 필요하다. 셋째, 불교교육을 바탕으로 한 불교사상의 확립과 실천, 다양한 시민운동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의 강화, 뉴에이지 운동의 긍정적 수용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교의 미래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배타적 성격보다는 개방적 다원적 성격의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불교의 특성은 미래사회의 가장 적합한 종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불교는 치유를 통해 영원한 행복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주제어

불교 지형, 종교와 세속(사회)의 관계, 불교 인구 감소, 비제도 불교, 미래 불교

참고문헌

- 강돈구, 『현대 한국의 종교, 정치, 국가』, 한국종교학총서 9,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 종교연구소, 2009.
- 강돈구 외, 『근대성의 형성과 종교지형의 변동 I』,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강인철, 박명수.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기독교적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 (3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 고병철. 「일제강점기의 종교지형과 종교 법규」. 『정신문화연구』, 40(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 김광식. 「한국 현대불교사의 전개와 불교의 정체성」.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대회, 2013.
- 김성건. 「종교의 미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5.
- 김성철, 「신자유주의의 정체와 불교도의 역할」, 『불교학연구』 제21호, 2008.

- 김철수, 「해방 이후 한국의 종교지형 변화와 특성」, 『한국학논집』 제53집, 2013.
- 권경임, 「불교계 국제개발협력의 전망과 과제, : 종교기반 개발NGO(FB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복지학 Journal of Global Social Welfare』, 2016.
- 권규식, 「한국종교와 사회변동의 특수성 연구, 현대 한국종교변동 연구」, 『연구본총』 93-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박수호, 이민정, 「종교인구 감소의 종교사회학적 의미와 불교계의 과제」, 『불교문예연구』, 2017.
- 박승길, 「해방 이후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종교사회학」,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엄 논문집』, 1995.
- 박준석, 「불교인구 300만 감소에 따른 대한불교진각종 전환기 교화전략」,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017.
- 송현주, 「근대 한국불교의 종교 정체성 인식 - 1910-1930년대 불교 잡지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7호, 2003.
- 염증섭(자현) 「4차 산업 시대 한국불교의 출가 문제와 미래적 대안」, 『한국선학』, 2018.
- 우혜란, 「현대적 종교현상으로서 ‘유동적 종교’(Fluid Religion)에 대한 논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5.
- 유승무, 「2008년 범불교도대회를 통해서 본 한국사회의 종교간 갈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8.
- 윤승용, 「한국전쟁과 종교지형의 변화」. 『불교평론』 43. 불교시대사, 2010.
- 윤이흠, 「사회변동과 한국의 종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87-3, 1987.
- 이병욱, 「근현대 한국불교의 사회참여 사상의 변화」. 『Asian Journal of Religion and Society』, 1(1), 2010.
- 이시윤, 오세일, 「한국 종교지형에 대한 이론 분석과 통합 과제」, 『사회이론』 48, 2015.
- 이진구, 「최근 한국불교와 보수 개신교의 갈등: 종교차별, 정교분리, 종교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종교문화 비평』 28.
- 전명수, 「뉴에이지 운동과 종교사회학의 지평」. 『한국학연구』, 32, 2010.
- 정병조, 「내일의 한국사회와 불교」, 『한국사회와 종교』, 한국종교협의회 편, 1989.
- 정승안, 「한국 불교사회운동의 전개와 그 특성」,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21권 제2호,
- 정승안·박수호, 「1980년대 한국 불교사회운동과 사회발전- 부산지역 불교활동가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55집, 2014.
- 정승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국불교의 대응」, 『한국학논집』 제59집, 2015.
- 조성돈, 「종교인구 변동에 대한 분석과 한국교회의 과제」. 『사회이론』, (32), 2007.
- 조성택, 「서구에서의 불교의 미래」, 『불교평론』 통권 16호, 불교시대사, 2003.
- 조성택, 「지금, 한국의 종교」, 『메디치』, 2016.
- 차성환, 『한국종교 사상의 사회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2.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한국갤럽, 2015.
- Kevin J. Christiano, *Sociology of Religion: Contemporary Development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8.

Endnote

- 1 Kevin J. Christiano, *Sociology of Religion: Contemporary Development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8. 종교사회학(宗教社會學)은 종교와 사회간의 상호 관계를 다루는 학문으로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과 보편적 주제, 발전, 역사적 배경, 관습에 관해 탐구한다. Berger, Peter L.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Anchor Books, 1990) 유사 이래 모든 사회에서는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곤 했다. 서로 대립하는 여러 교리를 비교하려면 피터 L. 버거가 말한 본래의 ‘방법론적 무신론’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종교사회학은 종교 철학과 달리 종교적 신념의 유효성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 또 종교사회학은 초자연성을 부정한다는 면에서 신학과 큰 차이가 있다.
- 2 유승무, 「2008년 범불교대회 통째로 본 한국사회의 종교간 갈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8. 687-694쪽. 다종교사회인 한국사회에서 기독교 종교지형의 급팽창은 최근 우리 사회의 종교문제의 원인(遠因)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종교지형변화가 최근 종교문제의 사회구조적 배경이며 바로 그러한 점에서 하나의 원인이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종교문제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 즉 근인(近因)이 따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근인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최근 일련의 종교편향사태가 그것이다.
- 3 이시윤, 오세일, 「한국 종교지형에 대한 이론 분석과 통합 과제」, 『사회이론』 48, 2015. 104-105쪽. 국내에서 종교지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사례들이 일부 있으나 개념이나 용례에 관한 이론적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 4 윤승용. 「한국전쟁과 종교지형의 변화」. 『불교평론』 43. 불교시대사, 2010. 한 사회 종교지형의 변화는 첫째, 각 종교의 내적인 역량, 둘째, 사회구조적 변화, 셋째, 종교시장의 변화 등이 추동한다.
- 5 고병철. 「일제강점기의 종교지형과 종교 법규」. 정신문화연구, 40(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18-22쪽. 첫째, 일본의 교파 신도와 불교, 조선의 불교, 그리고 기독교만 ‘종교’로 공인된다. 종교라는 범주와 범위가 만들어진 셈이다. 둘째, 불교와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단체를 종교로 공인하지 않는다. ‘종교와 비슷하지만, 종교가 아닌 것’의 범주가 만들어진 셈이다. 셋째, 일본의 신사 신도와 조선의 유교를 종교 범주에서 배제한다. ‘아예 종교로 볼 수 없는 것’이라는 범주가 만들어진 셈이다.
- 6 Ibid, 10-12쪽.
- 7 차성환, 『한국종교 사상의 사회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2. 221-223쪽.
- 8 송현주, 「근대 한국불교의 종교 정체성 인식 - 1910-1930년대 불교 잡지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7호, 2003. 331-332쪽. 서구사회에서는 진정한 religion이란 곧 기독교를 의미한다는 ‘종교=기독교’의 등식이 성립했으며, religion은 종교 일반을 가리키는 추상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기독교라는 특수한 개별종교만을 가리키는 이중적 함의를 가져왔다. 기독교만이 religion이며 다른 문화권에서의 ‘종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이었다.
- 9 윤이흠, 「사회변동과 한국의 종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87-3, 1987. 6쪽. 1984년 조사(윤이흠, 「종교인구조사의 방법론개발과 한국인의 종교 성향」, 『한국종교의 이해』, 집문당(1985), p.36ff.) 실천적 종교인이라한 특정종교의 1)신념체계 2)행동 및 실천규범 3)종교집단의 참여, 이러한 3가지 차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해당 종교의 생활이 요구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제도적인 종교집단에 속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특정 종교의 종합적 요건을 자기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한국인은 여러 종교 신념을 동시에 중복해서 갖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동시에 한국인이 하나의 제도적 종교에 얽매이지 않고 탈 제도종교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 10 박승길, 「해방 이후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종교사회학」,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엄 논문집』, 1995. 317쪽.

- 11 강인철, 박명수.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기독교적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 (3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105쪽.
- 12 Ibid, 128쪽. (강인철의 논문에 대한 박명수의 논평문 중)군종제도가 개신교를 통하여 도입된 것은 사실이다. 개신교는 처음에 경비를 담당한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민간인 신분으로 군목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개신교에만 주어진 배타적인 특혜가 아니었다. 불교에도 똑같은 기회가 부여되었지만, 불교에는 여기에 합당한 인사가 없었다.
- 13 강돈구, 『현대 한국의 종교, 정치, 국가』, 한국종교학총서 9,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 종교연구소, 2009. 37-38쪽. 첫째,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와 불교 교조들의 출생일이 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그러나 필자는 이 두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정교분리나 국교 금지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시민 종교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와 불교가 시민 종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에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구절이 있다....태극기는 분명히 주역에 근거한 것이므로 유교적인 상징임이 틀림없다....기독교 종교는 자기들의 주장이 과도한 것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 14 강돈구 외, 『근대성의 형성과 종교지형의 변동 I』,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354-355쪽. 요일 주기가 한국 사회에 제도적으로 정착한 것은 1895년 내각에서 만든 ‘관청집무시한’에서 일요일 휴무제를 법제화한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요일 주기와 일요일 휴무의 관습이 정착된 것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개신교였다. 농촌에 주요한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주일 파공의 법칙을 전례주년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유동적으로 운영했던 천주교에 비해서, 개신교는 주일성수를 종교 생활의 핵심에 두고 있어서 일요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 15 김철수, 「해방 이후 한국의 종교지형 변화와 특성」, 『한국학논집』 제53집, 2013. 349-359쪽.
- 16 권규식, 「한국종교와 사회변동의 특수성 연구, 현대 한국종교변동 연구」. 『연구본총』 93-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44-55쪽. (서울의) 불교 신자수는 1964년에 136,000명에서 1975년에는 2,991,000명으로 연평균 190.8%의 증가세를 보였고 (부산의) 불교신자수는 196년에 88,000명에서 1975년에는 1,083,000명으로 늘어나 102.8%의 증가율을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는 같은 기간 229.1%, 강원도에서는 103.4%, 충청북도에서는 325.5%, 충청남도에서는 251.3%, 전라북도에서는 19.2%, 전라남도에서는 95.7%, 경상북도에서는 116.9%, 경상남도에서는 56.6%, 제주도에서는 49.1%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냈다. 그 이유는 1962년 조계종단이 통합종단으로서 출범하였고 1966년 이후 젊은이들에 대한 포교가 전개된 점, 또한 그 시기에 이전에 등록되지 않았던 사찰들이나 신도들이 한꺼번에 등록한 점, 그리고 1960년대 이후 불교를 현대화, 사회화하려는 재가 불교 운동이 확산되어 불교의 신자체계가 정비된 점을 들 수 있다.
- 17 김광식. 「한국 현대불교사의 전개와 불교의 정체성」.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대회, 2013. 36쪽. 1027법난은 국가권력이 정권 장악을 위한 명분을 구축하기 위하여 불교계를 탄압한 사건이다. 10·27법난은 1980~1990년대 불교사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1027법난이 불교계에 끼친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이다. 불교계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성이 본격화되면서 불교실천운동의 싹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법난과 유관하다. 법난 이전에는 국가권력과 유화적인 관계를 드러냈던 불교, 특히 조계종단에서는 국가권력을 재인식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법난을 당하였으면서도, 법난의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이었기에 국가권력으로부터 수모는 간단치 않았다.
- 18 정승안, 「한국 불교사회운동의 전개와 그 특성」,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21권 제2호, 157-164쪽.
- 19 정승안·박수호, 「1980년대 한국 불교사회운동과 사회발전- 부산지역 불교활동가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55집, 2014. 286쪽.